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 주디스 버틀러의『젠더 트러블』과『젠더 허물기』비교 연구

조현준*

차례

1. 젠더 행하기와 젠더 허물기
2. '나'에서 '우리'로: 구성적 타율과 관계적 감성
3. 인간과 미인간의 경계에서: 트랜스나 인터섹스의 인간되기
4. '내 안의 너'에서 '내 앞의 너'로

〈국문초록〉

이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의『젠더 트러블』과『젠더 허물기』를 중심으로 버틀러의 전기 페미니즘과 젠더 정치학과 후기 타자의 윤리학의 차이를 살피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계보학적 관점에도 주목하려 한다. 구성적 타율과 관계적 감성을 중심으로 '나'에서 '우리'로의 전환을, 젠더의 소수성 때문에 인간과 미인간의 경계에 있는 트랜스나 인터섹스의 인간되기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내 안의 너'에서 '내 앞의 너'로의 이론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젠더 트러블』과『젠더 허물기』로의 전환은 크게 첫째는 나에서 우리로 존재적 인식론을 확대한 점이고, 둘째는 이론적 정교함에서 현실적 정치성으로 선회해 사회 소수자에 대한 정치 윤리적 성찰을 전개한 점이며, 세 번째는 다문화 시대에 차이를 수용하는 올바른 방식으로서 문화 번역 실천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젠더 트러블』이 '나'의 불안정하고 비결정적인 젠더 모호성을 옹호하면서 하나의 범주로 고정되지 않는 비정체성의 젠더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면, 『젠더 허물기』는 여성이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로, 또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우리'앞에 놓인 현실적 사회 문화 역사 지역적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말하고 느끼는 현실의 정치 윤리적 삶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전 후기 이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근본적 전제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권력의 담론 작용 효과를 놓치지 않는 계보학적 관점은 전후기를 관통해 유지되고 있다.

핵심어 : 『젠더 트러블』, 『젠더 허물기』, 구성적 타율성, 관계적 감성, 상호의존, 합주 행위, 나 자신을 잃고, 탈아, 계보학, 데이비드 라이머, 페미니즘 철학, 문화번역, 살만한 삶, 정치 윤리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 트러블』(1990)로 유명해진 미국 버클리 대학교 백인 레즈비언 유대인 교수다. 그녀가 젠더 이론과 퀴어 논의 및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전기 경향에서 정치 이론과 윤리의 문제 타자와의 관계성으로 선회한 후기 경향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9/11 사건이고, 따라서 그 직후 발간된 『젠더 허물기』(2004)와 『불확실한 삶』(2004)이가 전환점에 놓인 저작이 될 것이다. 버틀러를 퀴어의 창시자이자 '젠더의 여왕'[1]에서 인간의 인간됨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라크전 전쟁 포로수용소나 이스라엘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정치 운동가로 만든 전환점도 이 두 권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는 어떤 부분이 여전히 같으면서 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

모야 로이드(Moya Lloyd)에 따르면 버틀러는 섹스, 젠더, 욕망, 몸의

1) 게일 루빈은 버틀러를 군림하는 젠더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게일 루빈, 「성적 거래: 주디스 버틀러의 게일 루빈 인터뷰」, 『일탈』, 신혜수 · 임옥희 · 조혜영 · 허윤 옮김, 현실문화, 2015, 531-589쪽.

이론가로 유명하지만 주체가 언어로 인해서 인종에 따라 복종하게 되는 다양한 방식에도 관심이 있으며 특히 『불확실한 삶』, 『젠더 허물기』, 『윤리적 폭력 비판』은 '무엇이 살기 좋은 삶을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관심을 선회하게 한 저작이다.[2] 이런 전환은 젠더만 한정되지 않은 '인간'의 문제, 또 '윤리'의 문제를 사유하게 만든다. 카린 뉴(Carline New) 또한 버틀러는 『젠더 허물기』에서 트로츠키주의에 비유하면 '영원한 해체'로 양식화될 윤리적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3] 버틀러의 관심은 여전히 규범의 폭력과 그 문화적 인식가능성에 있다. 즉 문화적으로 특정한 규범이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 말이다. 주제는 젠더에서 인간으로, 젠더 정체성에서 삶의 가능성으로 변화했지만 그런 젠더와 인간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문화적 규범이다.

이 글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를 비교 연구하여 버틀러 연구의 전기 경향과 후기 경향의 차이를 발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의식도 탐색하려 한다. 『젠더 트러블』이 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개개인의 복합적 젠더 구성 방식을 논의한다면 『젠더 허물기』는 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발생하는 규범의 장, 사회성이나 관계성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와 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우울증적 젠더 구성 양식은 나를 나로 정체화하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는, 타자의 우선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한편 여전히 반복되는 관점에도 주목할 것이다. 사회적 규범이 자기 동일적 정체성이나 위계적 이분법을 허물면서 원인의 구성성을 논의하는 인과론의 전도와, 반복을 통한 규범의 변화 가능성, 미래로 열린 비평성의 가능성이 시사되기 때문이다.

---

2) Moya Lloyd, *Judith Butler,* Cambridge: Polity Press, 2007, p.134.
3) Carline New, "Undoing Gender," *Journal of Critical Realism* 5.2, 2006, p.397.

1. 젠더 행하기[4]와 젠더 허물기[5]

주디스 버틀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수사학과 비교문학 전공 교수이며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정치철학, 해체론을 기반으로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을 논의한 『젠더 트러블』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헤겔 철학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역사적 접근으로 박사논문을 쓴 버틀러에게 퀴어 이론의 창시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준 『젠더 트러블』 출간 이후 14년 뒤의 저작인 『젠더 허물기』는 그 해 출간된 『불확실한 삶』과 더불어 전기의 젠더 계보학에서 후기의 정치 윤리학으로 선회를 알리는 분기점에 있다.

젠더 존재론의 계보학적 연구라 할 『젠더 트러블』은 버틀러가 34세에 집필한 책이고 박사 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든 『욕망의 주체』(1987)에 이은 저작이다. "섹스는 이미 언제나 젠더"라는 말로 신체적 차이에 입각한 생물학적 성조차 기율권력의 효과인 당대의 인식성과 담론 체계 안에서 구성된다는 『젠더 트러블』의 주장은 많은 반론을 야기했고, 이에 대해 버틀러는 몸조차 당대 권력의 기율 담론 안에서 구성된 인식론이 없이는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고 응대하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1993)를 출판한다. 뒤이어 푸코 이론과 정신분석학 이론의 결합이라 할 『권력의 심리 양태』(1997), 언어적 수행문의 현실적 법적 판례를 논의한 『혐오 발언』(1997)을 출간하면서 버틀러는 정신분석학과 해체론으로 재해석된 푸코 이론가, 수

4) '젠더 행하기(doing gender)'는 1987년 캔디스 웨스트와 돈 짐머만의 『젠더와 사회』지에 실린 논문 제목이다. 웨스트와 짐머만은 젠더는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는 그들의 논의를 끌어와 젠더는 남녀에 대한 '규범적 개념'속에 계속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Francine M. Deutsch, "Un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21.1,* February 2007, p.106.

5) 리스만은 '젠더 허물기'는 2004년 버틀러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지만 2007년 도이치가 이를 약간 변형해 제시한 개념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젠더 행하기 연구가 젠더 허물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다. Barbara J. Risman, "From Doing to Undoing: Gender as We Know it," *Gender and Society 23.1,* February 2009, p.81.

행성과 수행적 언어를 결합한 언어 철학자로의 입지를 굳힌다.[6]

2000년에는 지젝이나 라클라우 같은 당대의 쟁쟁한 좌파 이론가들과 보편성 논쟁을 벌인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2000)과, 친족 교란과 젠더 역전의 급진적 퀴어 주체로 안티고네를 재해석한 『안티고네의 주장』(2000)이 출간된다. 이 두 권은 각각 보편성의 의미라는 것이 다양한 문화적 규범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사례인 고대 희랍 비극의 여주인공 안티고네가 어떻게 친족 교란과 젠더 역전의 퀴어 주체가 되어 친족도 젠더의 대표 불가능성이 되는지도 보여준다.

2004년에도 두 권의 책이 발간된다. 그 중 『젠더 허물기』는 인터섹스[7]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 교정수술이라는 명목의 사회적 폭력의 문제부터 비제도권에서 시작한 버틀러 자신의 철학이 갖는 타자성에 이르기까지 젠더와 젠더를 둘러싼 규범을 인간의 인간됨과 살기 좋은 삶,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찰한다. 다른 한 권 『불확실한 삶』은 2001년 9/11 사건이후 공적 죽음의 애도를 통한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논의하면서 애도 가능한 삶과 애도 불가능한 삶을 나누는 인식과 인정의 기준에 포함된 정치권력의 문제를 다룬다. 이후 버틀러는 『윤리적 폭력 비판』(2005), 『누가 민족 국가를 노래하는가?』(2007), 『전쟁의 틀』(2009),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2012), 『박탈』(2013) 등을 썼다. 이 외에도 인터뷰나 공저가 다수이며 2015년에도 『주체의 의미』와 『집회의 정치이론 소고』 두 권을 출간했다.

버틀러의 학문적 경향은 젠더를 중심 주제로 정신분석학과 해체론에 기반해 이론적인 연구에 주력한 전기 논의와, 인간됨이나 삶을 초점으로 현실의 정치 철학과 윤리학에 집중한 후기 논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6) 『젠더 트러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권력의 심리 생활』, 『혐오 발화』를 중심으로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이 가지는 정치적 잠재력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Gill Jagger, *Judith Butler: Sexual Politics, Social Change and the Power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eldge, 2008.

7) 인터섹스는 탄생 당시 여성의 성기보다는 크고 남성의 성기보다는 작아서 양쪽 어느 쪽에도 분류되기 어려운 간성을 말한다.

『욕망의 주체』부터 『안티고네의 주장』까지는 기존 페미니즘과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의미화되는 담론 권력과 규범 지형에 대한 이론적 천착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젠더 허물기』와 『불확실한 삶』을 기점으로 복잡한 이론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전경화되면서 인터섹스, 성 소수자에게 박탈된 권리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의 인권 문제,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집회, 이스라엘의 반 평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의 입장을 현실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중 버틀러의 전기 대표작 『젠더 트러블』에서 젠더는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연기 행위 중에 구성되는 개개인의 수행적 행위나 수행성인 반면[8], 후기 논의로 가는 전환점에 있는 『젠더 허물기』에서 젠더는 개인의 행위보다는 우리라는 사회성과 관계성속의 규범으로 표현된다. 도이치는 웨스트와 짐머만의 '젠더 행하기'는 젠더차이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반면, '젠더 허물기'는 젠더 차이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트러블』에서 원본 없는 복사본의 패러디, 행위 뒤에 행위자 없는 수행성, 복종과 재의미화의 역설을 안은 반복 복종, 타자를 주체 안에 보유하는 우울증의 양식으로 구성되던 젠더가[9] 『젠더 허물기』에 오면 사회성과 관계성으로 허물어지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구성하는 개인 이전의 규범, 규약, 규제들을 더욱 전면화하는 것이다. 행위 중에 구성되던 내 고유한 젠더가 우리의 관계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너 나의 구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젠더를 가능하게 한 토대였던 문화적 규범에 입각해서 상호간 관계성과 맥락적 사회성으로 허물어진다. 이제 모노젠더, 바이젠더, 트랜스 젠더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명을 통해 인식가능성과 인정가능성을 생산하는

8) 『젠더 트러블』에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으며 이는 고정된 정체성을 전복하고 지금 수행중인 행위로 구성되는 정체성을 논의함으로써 그 변화가능성에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가능성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9) 『젠더 트러블』을 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으로 읽어내는 글로는 필자의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학술정보연구, 2007, 3장과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1장을 참고.

언어와 문화의 배경인 규범이다.

『젠더 트러블』의 젠더는 본질처럼 보이기 위해 반복되어온 '몸의 양식화'이자 '반복된 일단의 행위'이지만, 『젠더 허물기』의 젠더는 나를 구성하는 우리의 패러독스, 개인에 녹아든 규범의 역설이다. 여기에 행하기와 허물기의 역설이 있다. 『젠더 허물기』의 서장 「합주 행위」에는 이처럼 나를 넘어서 있으면서,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던 세계 속의 주체에 주목한다. 내가 행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 행위의 조건은 부분적으로 내 존재의 조건이지만, 내 행위가 규범이 내게 작동한 방식에 달려있다면 내가 나로 지속될 가능성은 내가 행하기보다는 내게 행해진 것과 관련된 내 존재에 달려 있다. 나는 내 행위로 구성되지만 동시에 내게 행해진 규범으로도 구성된다는 행하기/당하기의 패러독스가 있는 것이다.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의 일부를 비교해보자.

> 젠더는 본질의 외관, 자연스러운 듯한 존재를 생산하기 위해 오랫동안 응결되어온 매우 단단한 규제의 틀 안에서 반복된 몸의 양식화이자 반복된 일단의 행위이다.10)

> 나의 행위주체성은 이런 나의 구성조건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행위 주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사회 세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로 인해 언제나 열려있다. 패러독스로 인해 찢겨졌다고 해서 나의 행위 주체성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패러독스만이 행위 주체성이 가능해지는 조건이라는 뜻일 뿐이다.11)

---

10) "Gender is a repeated stylization of the body, a set of repeated acts within a highly rigid regulatory frame that congeal over time to produce the appearance of substance, of a natural sort of being."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1990, p.33;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147쪽.

11)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13쪽.

『젠더 트러블』에서 젠더는 본질이나 자연의 외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적인 몸이나 행위의 양식화하고 주장했던 버틀러는 이제 『젠더 허물기』에 와서 우리는 서로에 의해 허물어지고, 누구든 항상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며, 내 몸은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젠더는 "규제의 장 안에서 일어나는 즉흥적 행위"12)이다. 아무리 개인의 즉흥적 행위라 해도 그것이 규제의 장을 벗어날 수는 없다. 조나단 볼렌(Jonathan Bollen)은 즉흥적 '행위'와 규제의 '장'의 구분이 의미하는 것은 젠더의 창의적이고 즉흥적이 면이 젠더의 더 구조적인 면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13) 초기 젠더 수행성 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젠더는 여전히 행위지만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부단히 행해진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졌다.

이제 젠더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것은 젠더가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인 행위라는 뜻이 아니다. 젠더에는 개별적 즉흥성과 사회적 규제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병존한다. 내가 나만의 젠더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 어쩌면 내가 창작해낸 나만의 소유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누군가의 고유한 젠더를 구성하는 관점은 처음부터 그 사람 외부에 있었고 그 행위의 저자도 한 명이 아니며 어쩌면 저자성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사회성 속에 있다. 젠더는 한 사람의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개인을 둘러싼 규범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젠더 트러블』은 "섹스는 이미 언제나 젠더"14)이며 젠더는 "자유롭게 떠도는 인공물"15), 혹은 "목적한 정체성으로 스스로 구성한다는 수행적"16)이며, "명사가 아니며, 자유롭게 떠도는 일군의 속성도 아니며"17)

---

12) 앞의 책, 10쪽.

13) Jonathan Bollen, "Dressing Up and Growing Up: Rehearsals on the Threshold of Intelligibility: a Response to Affrica Taylor," *Judith Butler in Conversation: Analyzing the Texts and Talk of Everyday Life,* ed. Bronwyn Davis, New York: Routeldge, 2008, p.222.

14)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97, 99쪽.

15) 위의 책, 95쪽.

"젠더는 언제나 행위"[18]라는 수행성으로서의 젠더 주장으로 페미니즘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저자를 퀴어 이론의 창시자로 등극시킨 버틀러의 대표작이다. 이 저작은 매우 논쟁적인 이론서로 시몬느 드 보봐르, 뤼스 이리가레 등의 페미니스트뿐 아니라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자크 라캉,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의 정신분석학자, 심지어는 미셸 푸코와 모니크 위티그의 섹슈얼리티와 레즈비언 논의까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9]

반면 『젠더 허물기』는 저자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기고하고 발표했던 11개의 글을 서문과 함께 묶어낸 책이다. 이 독립적 에세이들을 개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큰 주제로 묶어주는 글이 서문 「합주 행위Acting in Concert」이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이라고 말하고 행위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동료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공동의 행위를 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 새로운 일에 착수할 행위 능력은 욕망이나 생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일과 목표를 위해 나서게 해주므로 이런 정치적 행위의 중심에 있는 권력은 단순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합주 행위'라고 주장한다.[20] 특히 공적인 장에서 행위 능력, 집단적 정치 행동을 아렌트는 '합주 행위'라고 불렀고 엄밀히 말해 행위는 '합주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21]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는 젠더의 구성성을 논의하

16) 앞의 책, 131쪽.
17) 위의 책, 130쪽.
18) 위의 책, 131쪽.
19) 『젠더 트러블』의 논쟁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보봐르의 이원론과 이리가레의 일원론 비판, 둘째 라캉의 상징계 비판, 셋째 프로이트의 이성애 비판, 넷째 크리스테바의 모성성 비판, 마지막으로 푸코의 양성구유 여성의 쾌락과 위티그의 레즈비언 이상화 비판이다. 다섯 개 주요 비판에 대한 개론적 이해에는 다음을 참고.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20) "Power corresponds to the human ability not just to act but to act in concert. Power is never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it belongs to a group and remains in existence only so long as the group keeps together.", Hannah Arendt,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ovich, 1972, p.143.
21) Remi Peeters, "Against Violence, but not at any Price: Hannah Arendt's

지만 『젠더 허물기』에 이르러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악기 파트를 연주하면서 차이 속에 공존과 함께 사는 기술을 모색하는 정치적 행위, 나의 외부에 의존하는 '구성적 타율'과 '관계적 감성'에 더욱 주목한다.

2. '나'에서 '우리'로: 구성적 타율과 관계적 감성

버틀러에게 주체의 근본적 취약성이나 공동체와의 상호 의존성 논의를 자극한 것은 2001년 9/11이라는 외부에서 기인한 미국 최초의 대형 참사 사건이다. 9/11사건 이후 미국은 3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을 잃었다. 미국은 국가적 슬픔을 공언한 뒤 9/11을 테러로 규정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22] 이 전쟁으로 인한 전몰 미군 병사 수는 9/11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으며, 민간인을 포함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죽어간 사상사 수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십 수년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는 어림잡아 아프간에서 300만, 이라크에서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9/11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계 언론을 통해 하나 하나 이름을 부르며 애도되었지만, 아프간과 이라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공식 집계조차 나오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마을 하나가 폭격으로 사라져도 그런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젠더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인식될 가능성

Concept of Power," *Ethical Perspectives*, June, 2008, p.175.

22) 2001년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간 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을 테러가 규정지은 뒤 9/11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연합군을 구성했다. 당시 작전명은 '항구적 자유 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였다. 당시 침략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고, 알 카에다를 파괴하며, 탈레반이 알 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3년 3월 20일 나토군이 개입하면서 미군과 영국군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체포한다.

(intelligibility)과 인정될 가능성(recognizability)이다. 또 나 보다는 나를 나로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규약이 더욱 중요해진다. 주체는 나의 행위로 구성되지만 내 행위를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되게 하는 것은 주체 외부의 규범과 규약이기 때문이다.

챔버스와 카버는 버틀러의 '규범 폭력(normative violence)' 개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젠더 트러블』을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이라는 규범 폭력의 렌즈로 재독해하는데, 『젠더 트러블』과 『불확실한 삶』의 공통 관심은 규범 폭력이라고 주장한다.[23] 9/11은 미국인들에게 순수한 폭력, 명백하고 단순한 폭력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9/11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 반응을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가동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9/11의 테러리즘 행위를 의미화하고,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또 미국이나 유럽 혹은 관타나모에서 잠정적 테러리스트와 적군 전투원의 구금 형태로 나타난 미국의 반응을 이해할 필요 때문에 '폭력' 개념을 더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4]

비키 커비는 『젠더 허물기』가 정체성, 취약성, 행위주체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했다고 본다.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버틀러가 뉴 젠더 정치학, 즉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리티, 인터섹스, 또 그것들이 페미니즘 이론이나 퀴어이론과 맺는 복합적 관계에서 오는 도전을 인정하면서 더 모호해지긴 했지만 젠더 정치학의 풍경이 재편되었다는 인정이 버틀러의 기존 입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 예증했다고 주장한다.[25] 젠더 정체성이 왜 언제나 트러블이고 불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버틀러의 기여이기 때문에 젠더 경험에 대한 최근의 사례들이 모든 정체성 주장을 알려주고 복잡하게 얽고 또 절충하는 우연성의 증거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

23) Samuel Chambers and Terrell Carver, *Judith Butler and Political Theory: Troubling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8, p.87.

24) *Ibid.,* p.75.

25) Vicki Kirby, *Judith Butler: Live Theory,*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6, p.123.

『젠더 허물기』의 1장 「나 자신을 잃고Beside Oneself」는 젠더 행하기와 허물기의 패러독스를 통해 주체의 타자에 대한 근본적 의존성과 구성적 타율성을 주장한다. 나 자신은 잃는다는 것은 내 이성을 잃고 미칠 듯 분노하거나 제정신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는 슬픔이나 격정의 폭발로 인한 통제 불능상태를 말한다. 이는 하이데거의 탈아(Ek-stasis)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엑스터시(ec-stasy)로서 황홀경과도 연결된다. 버틀러는 이런 엑스터시를 정태적 상태로부터의 이탈(out of stasis), 존재로부터 탈주한 상태의 탈아(beyond existence)로 설명하면서 '나 자신을 잃은 상태의 나', 내 정체성 자체가 외부의 규범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앞에 우선하는 타자'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연결한다.

그렇다면 합주 행위나 통제력 상실, 혹은 엑스터시는 모두 개인보다는 관계성, 이성보다는 감정에 좌우되는 삶의 양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개별 정체성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성, 맥락성, 역사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이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적 격렬성과 관계성, 혹은 타인과의 정서적 공감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주체의 근본적 취약성과 타자에 대한 상호의존성에 바탕한다.

우리는 서로에 의해 허물어지고, 누구든 항상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며. 내 몸은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감정적 관계의 주체라면 내가 느끼는 슬픔은 나의 욕망, 즉 내가 사랑했던 대상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욕망과 욕망의 결과가 언제나 인간을 상처받기 쉬운 주체로 만든다. 이는 우리가 몸이라는 한계적 상황의 주체, 늙어 죽으며 쉽게 상처받고 고통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욕망과 한계는 나의 주체적 행위뿐 아니라 내게 행해진 사회 규범에도 그 원인이 있다.

> 똑바로 바라보자. **우리는 서로에 의해 허물어진다.** 서로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것이 명백하게 슬픔의 사례로 보인다면 이유는 단지 그것이 욕망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누구든 항상**

>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 온전하기를 바랄거나 실제로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면하면서 그 감촉이나 향기나 느낌, 아니면 그 감촉에 대한 예상이나 그 느낌에 대한 기억 때문에 허물어진다.[26](강조는 필자의 것)

> 몸은 가멸성, 취약성, 그리고 매개성을 함축한다. 피부와 살은 우리를 타인들의 응시에 노출시키는 한편, 접촉과 폭력에도 노출시킨다. 몸은 또한 이 모든 것의 매개이자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행하기와 당하기가 모호해지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몸은 다양한 공적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몸은 공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도 하다.**[27](강조는 필자의 것)

우리는 감정적 교류에 의한 관계성과 사회적 관계망 속의 주체들이며, 따라서 근본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속에 존재한다. 내 행위로 구성되는 몸의 구성성조차 내 행위에 작용하는 나의 외부의 규범성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구성적으로 타율적인 존재이자 관계적 감성의 존재가 된다. 우리는 서로에 의해 허물어지며, 누구든 항상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고,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3. 인간과 미인간의 경계에서: 트랜스나 인터섹스의 인간되기

구성적 타율성과 관계적 감성의 구체적 사례는 『젠더 허물기』 3장과 11장에 각각 소개된 데이비드/브렌다 사례와, 스스로 철학의 타자라 생각하는 버틀러 자신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내 외부에 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만드는 것은 타인과의 관

2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37쪽.
27) 위의 책, 41쪽.

계에서 비롯된 감성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달린 3장은 사회적 규범 때문에 타율적으로 몸이 구성된 데이비드/브렌다 사례를 다룬다. 원래 일란성 남자 쌍둥이로 태어난 브루스와 브라이언 형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생후 8개월에 포경 수술을 받기로 한다. 둘 중 브루스 먼저 수술을 받다가 레이저 기계의 출력 조절 문제로 음경이 거의 타버리게 된다. 이 사건으로 브루스의 부모님은 매우 놀랐고 막막해하던 중 우연히 TV를 보다 수술을 통한 트랜스섹스[28]와 인터섹스의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던 존 머니 박사를 알게 되었고, 머니 박사의 강력한 권고로 브루스를 여아로 키우기로 결정한다. 브루스는 고환을 제거하고 질을 만들기 위한 예비 수술을 받았으며 이름도 브렌다로 바꾼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머니의 연구소에서 장기간 정기 검진을 받던 브렌다는 9세~11세 경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음경이 없는데도 서서 소변보기를 좋아하던 브렌다는 다시 한 번 그런 행동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학교 여자아이들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그를 여자로 만들려는 머니 연구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렌다는 남성적 활동을 선호했고 에스트로겐 주사를 거부했다. 성의 재배치에 불만감을 느낀 브렌다는 내분비학자 밀튼 다이아몬드 박사의 재검을 받게 되면서 14세에 이름을 데이비드로 바꾸고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는 요법과 수술을 받았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고 젖가슴을 제거했으며 쾌감과 배뇨는 가능해도 사정은 불가능한 음경까지 달았다.

문제는 성에 대한 후천적 구성주의도 선천적 본질주의도 아니다. 머니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다이아몬드는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경계에 있는 몸에 폭력과 훼손을 가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브루스/브렌다/데이비드에게 시간을 주고 그 자신의 언어와 심리에 기초한 성적 결정권을 주기보다 인터섹스나 트랜스섹스를 사회적 시선으로

28) 트랜스섹스는 후천적 성교정술로 타고난 성을 바꾼 성이나 그 과정에 있는 성을 말한다.

판단하고 어느 하나로 빨리 결정하려는 규범적 이분법 관념일 것이다. 사실 그는 인터섹스도 트랜스섹스도 아니지만 비규범적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반응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인터와 트랜스의 영역에 있는 몸은 '권위적 의료담론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또 '정상성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훼손당한다. 브렌다/데이비드 사례는 인터섹스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 교정수술이라는 원치 않는 수술의 잔혹성과 강제성, 그리고 지속적 해악에 대해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할 때 공정이라는 윤리적 기준은 사회적 규범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자기를 설명하고 그 설명의 말,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말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에게는 이미 사용 중인 언어로 행해지고, 이미 규범에 젖어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려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생각의 미리 좌우하는 언어로 자기를 설명하기도 한다.[29] 데이비드를 오랫동안 따라다닌 인터뷰들, 계속된 강제적 관찰 과정은 데이비드에게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주기보다는 제도 담론의 의학 이론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데이비드의 사례를 이용했고, 설령 그런 언어를 주었다고 한들 이미 규범에 젖어 자신에 대한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언어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데이비드에게 자율권을 주었는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모습과 다르게 느끼는 데이비드가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 또한 이미 제도 담론과 젠더 규범에 입각해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이비드의 정체성은 자기동일적 자율성에 입각한 행위의 결과이기보다는 구성적 외부로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인한 '구성적 타율성'의 효과이다.[30]

---

29) 앞의 책, 114쪽.

30) 버틀러는 파울 첼란의 "만약 내가 있다면 나는 너야"를 인용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인가를 요약하도록 작동할 이야기 형식으로 타자에게 설명하면서 나 자신을 묶기 때문에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타자가 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비드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오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하는 말이 그의 인간됨을 선언해 줄 규범과, 그가 자신을 설명하는 말 사이에 있는 간극이자 그 둘 간의 통약 불가능성이다. 그의 발화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를 구성하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으며, 그의 인간됨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인정하거나 제거하거나 범주화할 수 없는 방식들 속에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화를 통해 인식가능성을 부여하는 규범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발화의 '설명 불가능성'은 발화를 통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전조가 되는 파편을 말 속에 남기는 타자의 설명 불가능성이자 담론 자체를 초월한 자아의 '설명 불가능성'31)이다.

한편 관계적 감성의 문제에 주목해보면 버틀러는 『젠더 허물기』 마지막 장에서 자신을 철학의 타자에 빗대어 '철학의 타자는 말할 수 있는가'32)를 묻는다. 『젠더 트러블』에서 이론적 쟁점 뒤에 숨었던 패러디적 수행성 주체, 반복 복종속에 재의미화되고 사랑하는 타자를 합체한 모호한 행위 주체는 『젠더 허물기』에 와서 유대인, 여성, 퀴어, 철학자로서 역사적 현실 속의 자신을 전면화하고 제도 교육 규범에 저항하던 문제아, 골방에서 담배를 피워대던 바 다이크, 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페미니즘을 사유하는 철학자로 정체화된다. 창고에서 부모님을 학창시절 철학책을 독학하거나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의 강의를 들으며 비정통적 방식의 철학교육을 받은 유대인 퀴어 버틀러의 입지는 그가 사회 소수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이런 문제의식은 인터섹스나 트랜스섹스 문제와도 맞닿아있다. 강대국의 제도권 교육자, 즉 버클리 대학 백인 교수로만 알려졌던 버틀러는 스스로를 유대인, 비학제적 교육을 받은 철

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116쪽.

31) "서술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설명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신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망친다." 위의 책, 118쪽.

32) 이 제목은 가야트리 스피박의 유명한 글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를 되울린다. 사티 제도에서 인도 여성이 하위주체라면, 버틀러는 철학의 타자에 비유된다,

학자, 젠더 동일시의 문제를 겪는 사람으로 전면화된다. 그래서 주변인이자 소수자로서 철학의 타자, 남성의 타자, 이성애자의 타자라는 타자적 위상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

버틀러가 철학을 하게 된 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적 연대성과 감성적 공감이 큰 역할을 했다. 버틀러가 철학에 입문한 계기는 젠더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던 십대 때 집 지하실에서 부모님의 대학 시절 교재를 발견하면서이다. 엄마의 대학교재였던 스피노자의 『에티카』,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빠 애인의 책이였던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당시 대학 교재였으니 철학 제도의 부산물로 온 것이지만 부모님의 유산이라는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온 버틀러의 인생 책들이다.[33] '욕망'과 '인정'이라는 버틀러의 인생 주제를 중심으로 베닝턴 대학에서 예일 대학으로, 독일 유학을 거쳐 버클리대 교수가 되기까지 그를 이끈 동력은 제도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할 열쇠이자 언어였다. 그는 『젠더 허물기』 출간 몇 년전 뉴스쿨 정치사회학 대학원생의 학술회의 제목이 "페미니즘 철학이 철학인가?"였던 것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철학이 제도권 교육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도 철학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자각한다.

버틀러는 젠더 규범에 순응하는 전형적 여성만 여성인 것이 아니라, 크로스젠더 동일시를 하는 여성의 다양한 젠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삶 속에 고민하듯, 철학이 나아갈 길은 철학 학제에서 인정하는 교과 목록상의 철학자 탐구만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인접학문과의 교류가 아닌지를 학문 속에 고민한다. 비규범적 젠더 양식과 비제도적 철학 공부로 이루어진 저자의 현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실천적 고민이기도 하다. 철학이라는 제도 학문, 젠더라는 정체성이 안정된 제도나 고정된 규제에서 자유로울 때

33)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368-371쪽.

그것은 새로운 해석과 의미로 열릴 것이고 또한 비억압적이고 비폭력적 미래로 향할 가능성이 된다. 반대로 정통 철학, 규범적 젠더만을 고집하는 것은 억압과 폭력을 생산할 수 있다. 오히려 철학의 문제아, 젠더의 이단아가 철학의 타자로서, 또 젠더의 타자로서 철학과 젠더 내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드러내고 동일시의 폭력을 막을 윤리적 방식이 될 수 있다.

4. '내 안의 너'에서 '내 앞의 너'로

구성적 타율과 관계적 감성을 논의하는 『젠더 허물기』는 14년 전 쓰인 『젠더 트러블』과 공유하는 인식론적 관점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다. 우선 인과론의 전도를 통해 원인의 계보 밝히려는 계보학적 사유는 공통적으로 이어진다. 젠더 규제에 앞서 존재하는 젠더는 없으며 젠더가 어떤 규범이라면 그것은 주체가 인식될 수 있는 장을 생산하는 사회 권력의 형식이고 젠더 이분법이 제도화되는 장치이다. 그런 규범으로서 젠더의 이상성은 젠더 실천들이 제도화한 결과물이다. 프랑수아 에발드(François Ewald) 는 규범적 행동은 법의 사법적 체계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존재하는 것이며 규범화가 입법의 증가를 필요로 하기는 해도 반드시 입법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는데[34] 버틀러 또한 규범은 규칙의 특수한 변형태일 뿐 아니라 규칙을 생산하는 방식이자 가치결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젠더 허물기』가 그녀의 대표작 『젠더 트러블』과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나'에서 '우리'로 존재적 인식론을 확대한 점이고, 둘째는 '이론'적 정교함에서 '현실'적 정치성으로 선회해 사회 소수자에 대한 정치 윤리적 성찰을 전개한 점이며, 세 번째는 '연합'의 정치학(coalitional politics)에서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 실천으로

34) François Ewald, "Norm, Discipline, and the Law," *Law and the Order of the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138.

강조점을 옮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젠더 트러블』이 '나'의 불안정하고 비결정적인 젠더 모호성을 옹호하면서 하나의 범주로 고정되지 않는 비정체성의 젠더 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면, 『젠더 허물기』는 여성이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로, 또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우리'앞에 놓인 현실적 사회 문화 역사 지역적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말하고 느끼는 현실의 정치윤리적 삶을 논의한다. 이 때 문화상대주의와 구별되는 문화 번역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전기의 젠더 계보학에서 후기의 정치윤리학으로 가는 기점에 있는 『젠더 허물기』는 무엇보다도 젠더에서 인간으로, 나에서 우리로 인식 지평을 확대한다. 『젠더 트러블』이 패러디, 수행성, 반복 복종, 우울증의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허물면서 이분법적 도식을 해체하고 인과론을 전도하는 퀴어적 젠더 형성방식에 주목했다면 『젠더 허물기』는 여성이면서 사회적 소수자로, 또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인간', 또 그 인간의 사회적 모임인 '우리'라는 공동체에 집중한다.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나의 외부, 우리의 외부에 있다. 그것은 나를 벗어난, 내 옆 혹은 내 외부에서 비롯된 나의 정체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탈아적(ec-static)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적 없는 세상에 던져져 나 이전의 세상이 가진 인식론과 판단기준으로 이해되는 존재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은 우리 내부라기보다는 우리의 외부에 있다.

이제 젠더가 규범이 된다는 것은 항상 미약하게만 특정한 사회 행위자에 의해 구현된다는 의미가 된다. 규범은 규범화의 암묵적 기준으로 사회적 실천 속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명시적 '규칙'이나 법제적 '법칙'과 구분된다. 불어로 정상성(normalité)은 1834년에, 규범(normatif)은 1868년에 등장했고 독일 규범과학은 19세기 말에 등장했다. 흔히 정상화를 의미하는 규범화(normalization)라는 말도 1920년대에 등장한 역사적 산물이다. 에발드 뿐 아니라 푸코에게도 규범화는 관료적이고 훈육적인 권력이 정상성을 만드는 작용을 말한다.[35] 정상성에 입각한 암묵적 규범

(normality/norm)을 만드는 명시적 규제 또한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 누군가를 훈육하고 감시하는 근대 후기 권력 양태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두 번째로 현실의 정치 윤리학 문제가 더욱 전경화된다. 이론의 미로 속에 갇혀있던 버틀러는 스스로를 철학자, 여성, 퀴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비제도적 방식으로 철학 교육을 받고 철학으로 간주되지 않는 페미니즘 철학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상황도 노출시킨다. 특히 트랜스나 인터섹스의 영역에 있는 몸에 대한 강제적 성 교정 수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에 나오는 이성애나 동성애로 규정할 수 없는 브랜든과 라나의 복합적 성애 양상을 설명하고, 또한 『안티고네*Antigone*』의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관계를 분석가와 피분석가의 관계로 재독해하고자 하며, 동성애 공포증으로 인한 브랜든 티나와 매튜 셰퍼드, 그웬 아라우조의 불행한 삶[36]을 전면화하는 부분은 기존의 이론적 접근방법과는 매우 달라진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와 윤리가 만나는 지점을 부각시킨다.

비키 커비는 『젠더 허물기』에 나타난 변화는 규범과 규범적 권력에 대해 보다 생생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규범적 권력이 순수한 규제와 등치된 반면, 『젠더 허물기』 2장 「젠더 규제들」이나 10장 「사회 변화의 문제」에서 규범은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행동 패턴이나 처신과 동의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37] 쉽게 말해 규범은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몸의 의례적이고 사회적인 교류의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버틀러가 상징적 법과 사회적 규범을 구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35)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85쪽.

36) 티나 브랜든/브랜든 티나는 1992년, 매튜 셰퍼드는 1998년, 그웬 아라우조는 2002년 호모포비아로 인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희생된 인물들이다.

37) Vicki Kirby, *Judith Butler: Live Theory,*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6, p.124.

> 젠더가 어떤 규범이라면 그것은 개인들이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모델같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젠더는 주체가 인식될 수 있는 장을 생산하는 사회 권력의 형식이고 젠더 이분법이 제도화되는 장치이다. 젠더에 지배되는 실천들과 무관해보다는 규범으로서 젠더의 이상은 바로 그런 실천들이 다시 제도화한 결과물이다. 이 말은 실천과 그 아래서 실천이 작동중인 이상화의 관계는 우연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화 자체도 어쩌면 잠정적인 것으로 탈이상화나 권위박탈을 겪으면서 문제와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38]

이처럼 차이의 윤리적 대면이라는 문제는 젠더의 소수자, 철학의 타자에 대한 정치윤리적 성찰로 연결된다. 어떤 사람이 젠더 트러블, 젠더 블렌딩, 트랜스 젠더, 크로스 젠더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시된 이분법 너머에서 젠더가 유동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버틀러에게 트랜스 젠더는 제 3의 젠더가 아니라 규범적 젠더로 환원될 수 없는 틈 사이의 전환적 젠더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규범의 일상적 실천속에 탈-이상화와 권위박탈을 겪을 가능성은 문화번역 실천의 문제로 연결된다. 문화번역은 차이에서 오는 도전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식성의 척도와 잣대를 문제 삼는 이런 차이를 대면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그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 그 차이가 내 존재에 위기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 방식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다문화 시대에 차이를 마주할 윤리적 방법으로서 문화 번역 실천은 버틀러가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에서 강조했던 개념이다.[39] 시간, 공간, 국경을 넘는 글로

---

38)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83쪽.

39) 우연성은 필연성을, 헤게모니는 경제 결정론을, 보편성은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의 최종심급은 보편성의 문제로 수렴되는데, 보편성이 기의 없는 텅 빈 기표라고 보는 라클라우나 지젝과 달리 버틀러는 다양한 문화규범에 따라 보편성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해방적 보편성을 위해서는 '문화번역'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버틀러의 번역 실천은 문화 규범속에

벌 사회, 지구촌 네트워크 속에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계성을 체현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맥락에서 문화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변환 속에 일어나는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의 가능성이자, 다양한 이질성과 정체성 간의 상관적 지식으로서 문화적 동요 속에 유동하는 공간과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경계 간의 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변환의 과정은 기존의 재현 체계를 위협하고 새로운 경계 넘기와 교섭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편성 개념에서 배제된 것으로부터 역사적이고 우연적인 자기 정의를 발견하는 '언어도단'이나 '수행적 모순'으로 나타나며,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미래로 '열린 보편성'으로 재소환된다. 그것은 자기 안에 유령으로서의 타자를 포함할 가능성이자 반토대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구성적 외부가 될 잠재성이기도 하다. '경쟁하는 보편성'으로 재소환된 문화 번역은 기존의 보편성 개념을 파괴하면서 보편성의 구성적 외부이자 보편성의 우연적 경계를 구성하는 '수행적 모순'으로 작용한다.[40]

보편성에서 배제당하면서도 보편성의 관점으로 주장을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수행적 모순일 수 있다. 언어적으로 발생하는 수행적 모순으로 보편성을 표명하는 것은 미래의 민주적 기획에 합당한 보편성의 역사적 기준을 수정하고 재편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보편성이 아직 분명히 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직'이라는 말이 보편성 자체를 이해하는 데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즉 보편성으로 '구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핵심적 의미에서 보편성을 구성할 수 있다. 보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편성의 기존 공식에 도전하면서 보편적인 것은 표명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현 체계 안에서 '누구'라고 명명될 언어적 위치나 인식적 위치가 없으면서도, 보편성 개념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사람

숨겨진 배제성을 드러내어 새로운 보편성을 정식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40) 경쟁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으로서의 문화번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조현준,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를 통해 본 <뮬란>의 여성주체 번역 실천: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번역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의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375-411쪽.

들의 도전이기도 하다.

어쩌면 『젠더 허물기』는 젠더에서 삶으로, 나에서 우리로 이행하면서 젠더의 철학화, 철학의 젠더화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사실상 철학을 얻은 반면 젠더는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삶에 관한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페미니즘 이론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와 정치를 아우르는 가장 철학적인 주장을 통해 페미니즘은 철학이고 철학은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41] 또 이는 나에 선행하는 너, 나의 경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너는 '너 없는 나'의 정체성의 필연적 실패를 이끌 윤리적 자원이기도 하다. 젠더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나의 젠더, 나의 인간됨 혹은 내가 인간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에 나보다 앞서는 타자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나는 사회성과 문화 규범위에 구성된 우리에 의존하고 그에 따라 우리로 허물어진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근대 젠더 주체가 누구도 그/그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의 상호성이 부각된다. 현실의 젠더는 상호의존과 상호관계에 열려 있어서 자율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율적이고 관계적인 우리,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 규범과 문화 토대, 또 그 인식 가능성과 인정 가능성을 만드는 담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 감성 속에 사는지도 모른다.

『젠더 트러블』을 경유해 『젠더 허물기』가 놓치지 않는 비평적 시각은, 근본적으로 장소를 갖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비장소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던 조건에 대한 질문의 가능성을 열어내자는 것이다. 비평성이란 사유된 실험, 에포케, 의지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는 없지만 토대 자체의 열개와 파열을 거쳐 도달할 어떤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42] 이런 비평성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비유어로밖에 지칭될 수 없지만 그것은 기존에 정해진 영역에 위치한 장소나 의미가 아

41) 조주영 「삶의 가능성을 열기 위하여: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허물기』」, 『여성이론』 3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6, 256-257쪽.
42)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174쪽.

니라 오히려 그런 장소나 비장소의 경계 설정 행위를 꼼꼼히 살피는 활동이다. 비경계나 무경계라는 어떤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대안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도 기준과 규범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비평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사이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의심 없이 정치적으로 합당한 일을 주저없이 행하기보다는, 기존에 당연시 되던 기준을 형성하는 권력 관계와 담론 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윤리적으로 심문하면서 인식성 자체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1. 단행본

Arendt, Hannah,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ovich, 1972, p.143.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1990. p.33.

_____, *Bodies That Matter,* New York: Routledge, 1993, p.1-288

_____, *Excitable Speech,* New York: Routledge, 1997, p.1-182

_____, *Psychic Life of Power,* Stanford: Stanford UP, 1997, p.1-218.

_____ et al. *Hegemony, Contingency, Universality,* London: Verso, 2000, p.1-330

_____, *Antigone's Claim,* New York: Columbia UP, 2000, p.1-112.

_____,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2004, p.1-320.

_____, *Precarious Life,* New York: Verso, 2004, p.1-168.

_____,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P, 2005, p.1-176.

_____,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Cambridge: Harvard UP, 2015, pp.1-256

Chambers, Samuel and Terrell Carver, *Judith Butler and Political Theory: Troubling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8, pp.75-87

Davis, Bronwyn. Ed, *Judith Butler in Conversation: Analyzing the Texts and Talk of Everyday Life,* New York: Routeldge, 2008, p.222.

Jagger, Gill, *Judith Butler: Sexual Politics, Social Change and the Power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eldge, 2008. pp.1-224.

Kirby, Vicki, *Judith Butler: Live Theory,*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6, p.123.

Lloyd, *Moya Judith Butler,* Cambridge: Polity Press, 2007, p.134.

게일 루빈, 「성적 거래: 주디스 버틀러의 게일 루빈 인터뷰」, 『일탈』, 현실문화사, 2015, 531-589쪽.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130쪽.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1장.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학술정보연구, 2007, 3장.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116쪽.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147쪽.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83-371쪽.

2. 논문

Deutsch, Francine M. "Un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21.1,* February 2007, pp.106-127.

New, Carline. "Undoing Gender." *Journal of Critical Realism 5.2,* 2006, pp.397-401.

Peeters, Remi "Against Violence, but not at any Price: Hannah Arendt's Concept of Power," *Ethical Perspectives 15.2,* June, 2008, pp.169-192.

Risman, Barbara J, "From Doing to Undoing: Gender as We Know it." *Gender and Society, 23.1,* February 2009, pp.81-84.

조주영, 「삶의 가능성을 열기 위하여: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허물기』」, 『여성이론』 3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6, 249-257쪽.

조현준,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를 통해 본 <뮬란>의 여성주체 번역 실천: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번역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의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375-411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Gender Trouble and Undoing Gender* by Judith Butler: My Identity to Beside Myself, Gender to Humanness

Cho, Hyun-June

This essay aims to study the turn of Butler's 'feminist and gender theory' to 'ethics for the others' combined with politics sustaining the same genealogical viewpoints, comparing *Gender Trouble* and *Undoing Gender*: 1) the turn from 'I' to 'w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heteronomy; 2) the turn from 'gender' to 'human' mainly based on becoming human of transsex or intersex people; 3) the turn from 'you inside of me' to 'you before me' focused on the priority of others from ethical points of view. As Butler said in *Undoing Gender,* we are undone by each other because nobody can't always stay static, and my body is not solely mine in the social world dominated by cultural norms. The turn from *Gender Trouble* to *Undoing Gender* can be explained in three points: 1) to enlarge the ontological epistemology from me to us; 2) to transform from the sophisticated theoretical positions to ethical and political practice to consider social minorities; 3) to place more emphasis on cultural translation practice as a politically correct way to accept the challenge of differences than colaitional politics in the era of this multicultural period. While *Gender Trouble* participated in theorizing indecisive, unstable and free floating sex, gender, sexuality as an effect of regulatory power and disciplinary

discourse in non-identity politics with the famous statement of "sex is always already gender," *Undoing Gender* keenly recognizes the practical phases of ethical and political life of minorities like LGBTQI. At this point,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translation practice appears to accept the differences of queers without discrimination to live a livable and viable life. Last but not least, the genealogical viewpoints last consistently to stay skeptical to the fundamental assumptions such as a origin or a cause and also to reveal its historical context and discursive effects of the power regime. It requires permanent provisionality about gender possibilities and in particular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Key words : *Gender Trouble, Undoing Gender,* constitutive heteronomy, relational emotions, interdependency, acting in concert, beside oneself, ec-stasy, genealogy , David Reimer, feminist philosophy, cultural translation, livable life, political ethics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